



\*\* 이 나라에도 작은 수지만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. 그 크지 않은 모임들 안에도 나뉘고 분열이 있습니다. 이곳의 교회가 이땅에서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

일터에서는...,

\*\*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.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며 말뿐이 아닌 함께하는 모두의 삶 속에 Kingdom Business 로 나아가기 위한 더욱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.

\*\* 함께 일하며 신뢰의 관계를 쌓은 자매들을 각각 부엌과 홀의 매니저로 세웠습니다. 그들과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며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. 그 꿈위에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간구합니다.

\*\*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restore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. 가급적 직원들 스스로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저희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공동체 안에서는...,

\*\* A 형제는 아직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깊이 있는 나눔을 갖지 못한 것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.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.

\*\*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던 O 는 혼자서 진리를 찾아 주님을 믿게되는 자리까지 온 형제입니다. 회심 후 가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기도 했던, 그래서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형제인데 지금 교제가 끊긴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. 어디를 가든 건강하게 균형잡힌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.

\*\* 지난 주에 미국에서 S 자매가 방문하여 교제하였습니다. 현재 남가주 사랑의 회사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인데 내년 초에 이곳에 와서 6 개월간 단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. 선교에 헌신된 자매인데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먼저 6 개월 단기로써 경험을 할 것입니다. 준비하는 과정과 와서 보내는 시간들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.

\*\* H 와는 몇번 만남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눔 후 본인의 이슬과 신앙에 대한 깊은 체험과 헌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. 그럼에도 그런 그녀의 삶 주변에는 저희 뿐 아니라 몇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. 그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열심 일겁니다. 그 관계들 안에서 그녀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,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.

개인적으로...

\*\* 내년에 안식년을 계획합니다. 형편상 사역을 떠나진 않겠지만 최대한 이곳에서의 일과 사역에서 거리를 두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 보고 나아갈 시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2009 년에 안식년을 하고 15 년 만에 계획하는 안식년이니 만큼 이 시간들을 통해 회복과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.

감사하고 사랑합니다.

2024 년 11 월에 윤요셉, 마리아 올림